

카스피 해 연안 5개국 해군 군비경쟁 실태 및 향후 전망

양봉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I. 서론

II. 군비경쟁 분석의 이론적 배경

1. 군비경쟁의 개념
2. 군비경쟁의 원인 분석

III. 카스피 해 역내 해군 군사력 및 군비 경쟁의 과정 분석

1. 러시아
2. 이란
3. 아제르바이잔
4. 카자흐스탄
5. 투르크메니스탄
6. 군비경쟁의 과정 분석

IV. 결론

초 록

카스피 해는 세계 최대의 내해로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 5개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은 확인된 원유매장량만도 약 40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5%에 이르며, 잠재매장량은 2,600억 배럴이며 천연가스의 잠재매장량은 217조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카스피 해 석유의 60~70%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게 되면서 경계 획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접 5개국의 입장은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보는 시각과 호수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 국가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향후 경계 획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카스피 해에서의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독립 국가들의 해군 창설 및 이란의 구축함 도입, 러시아 함대의 스텔스 함정 도입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카스피 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군비경쟁의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카스피 해 연안 국가들의 군사력을 상호 비교하고 군비 경쟁이 카스피 해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군비경쟁의 원인에 관련된 이론을 대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서론

약 1100만 년 전까지 아조프 해, 흑해, 지중해를 거쳐 대양과 연결되었던 카스피 해는 오늘날 카프카즈 산맥의 동쪽, 광대한 중앙아시아 스텝의 서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내해이다. 그 길이는 남북으로 약 1,200km, 동서 간 평균너비는 약 320km이며, 면적은 한반도의 약 1.7배인 386,000km²에 달한다.¹⁾

카스피 해는 브레진스키가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정 지대, 즉 ‘유라시아의 발칸’이라고 표현한 유라시아 대륙 서남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지리적, 문명적 교차점에 걸터앉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유라시아의 패권경쟁에 뛰어들어 국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목표물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지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더 큰 이유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 때문일 것이다. 카스피 해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연안국들은 물론,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려는 강대국들 간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²⁾

그러나 카스피 해는 지난 세기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정학적 안정을 누렸다. 1921년 소비에트와 페르시아의 조약 체결 이후 70년간 카스피 해는 러시아와 이란이 공유하는 ‘고요한 바다’로서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지정학적 안정지대’였다.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고요한 바다’의 연안에 세 개의 새로운 독립국들(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민족국가 건설에 나섰으며,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진공상태에 놓인 이 지역에 역외 강대국들까지 개입하면서 복잡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스피 해는 연안의 신생독립국가에게 지정학적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 주었다. 카스피 해에 매장된 막대한 에너지 자원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경제를 건설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연안국들 간 경계획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0년 연안국 회의 이후 러시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간 합의가 나오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란은 카스피 해를 호수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한발 뒤로 물러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스피 해 경계획정 문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접경 국가들 간 소리 없는 군비 경쟁을 엿볼 수가 있다. 카스피 해 연안 개발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점점 연안에서 먼 지역에서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위키피디아 ‘카스피 해’

http://ko.wikipedia.org/wiki/%EC%B9%B4%EC%8A%A4%ED%94%BC_%ED%95%B4 (검색일 2013.11.23)

2) 제성훈, “카스피 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회 제26호, 2009, pp01-03

이러한 이유로 군사적 충돌이 가시화 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하여 국가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해상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이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독자적인 해군을 창설하였고 러시아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함정을 카스피 해 함대에 배치시켰으며 이란은 최근 구축함을 진수하며 한층 군사력을 강화하였다.³⁾

이와 같은 군사력 증강은 이따금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7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해군은 무력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으며, 러시아는 자신의 영해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게 경고한 것이 그 사례이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의 물자 허브로 카자흐스탄의 아크타우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를 이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해군력 증강에 은밀하게 도와주며 러시아와의 힘겨루기에 위 3개 국가를 대리로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군비경쟁 개념 및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카스피 해 지역 내 군사력 비교 및 군비경쟁의 원인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향후 상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군비 경쟁 분석의 이론적 배경

1. 군비경쟁의 개념⁴⁾

군비경쟁이라 함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적대국 중 일방이 그들의 국가안보 내지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력이라는 확신 하에 군대를 증강하거나 무기의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무기의 양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는 일련의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⁵⁾ 한마디로 군비를 확장해 가려는 경쟁으로 전쟁의 억제와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군비경쟁이란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두 개의 국가 혹은 국가 군(群, group)이 갈등적 목표추구나 상호 공포로 인하여 평화 시에 군사력을 점진적이고 경쟁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1백 년간 발생한 80여 회의 전쟁 가운데 10회의 전쟁만이 군비경쟁 뒤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즉, 군비경쟁이 반드시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무기의 수가 증가하고 그것이 우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된다는 면에서 볼 때, 결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John CK Daly, "The Caspian's Naval Arms Race"

<https://wdsi.wordpress.com/2012/05/23/the-caspian-naval-arms-race/>, ISN Security Watch

4) 방금철, “한중일 3국 해군군비경쟁에 관한 실태와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2006, pp 10~17

5) 군비경쟁, 민족백과대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06628

스미스(Theresa C. Smith)는 군비경쟁을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 뚜렷한 경쟁 혹은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군비의 양적 혹은 질적 증가”로 정의하며 특히 경쟁기간의 성립 요건으로서 군사비의 증가와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존재해야 하며 군비경쟁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레이(Colin S. Gray)는 군비경쟁을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양자 또는 다자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상대의 군사, 정치적 행위들에 대비하여 그들의 군비를 급속도로 향상 또는 증가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앤더튼(Charles H. Anderton)은 군비경쟁을 “양자 혹은 다자가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양적 혹은 질적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양적 혹은 질적 군사력을 변화시키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위 학자들이 주장한 군비경쟁의 개념들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상호 경쟁을 유발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 기간은 지속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적대감이나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각 국가마다 실질적 군사력 향상이 보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군비경쟁이란 2개의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군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무기의 누적적인 확산 또는 생산증가를 초래하고 국가의 안보목적을 위하여 양적·질적 또는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갖추겠다는 확신에 고무되어 군대를 증강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는 2개국, 수 개국 또는 동맹국간 군비증강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군비 경쟁의 원인 분석⁶⁾

군비경쟁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한 국가의 군사적 발전은 외부의 위협 및 공포로 인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국가 내부에서 군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사비 책정이 커지면서 군비증강 및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이 있으며 이외에 산업계 및 노동계가 군부랑 결탁하면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 군사비가 증가하고 주변국가로 군비 경쟁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우선 외부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리처드슨의 작용-반작용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국가안보를 위한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상대국의 군비증강을 자극하여 상호간에 군비를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쟁을 해야 되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군사비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는 다른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이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는데 이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를 자기 안보의 위협으로 생각하게 되는 소위 ‘안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 이론에서의 다른 원인으로는 군사력을 통한 자국의 위상 향상 노력이 있는데, 이는 군사력이 자국의 정치 및 외교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발상에서 시작한다.

6) 김승, “군비경쟁의 기원 : 동북아시아(1998~2008) : 군사비 증강의 원인분석과 리처드슨의 군비경쟁 이론의 재고찰”, 고려대학교, 2009

그는 연구에서 분쟁에서 전쟁으로 발전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요인이 분석한 요인 중 가장 현저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전쟁규모를 0~7도로 구분을 하고 1820년부터 1949년까지의 300개 전쟁 중 64개인 21%가 경제적 원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64개의 전쟁 중 26개인 41%가 일국의 타국에 대한 영토적 주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다 한 국가가 많은 국가와 국경선을 접하게 되면 전쟁에 관계되는 빈도가 높게 되며,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은 원거리 국가와의 전쟁 가능성보다 높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세계 최다 접경국인 러시아는 여기에 해당되고, 스위스나 프랑스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아나톨 라포포트의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⁷⁾ 유명한 수학자인 그는 국제적 갈등상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타 영역의 학문을 채용할 것을 시도하였다. 그의 저서인 “싸움. 게임. 토론 (Fight, Games and Debates)”에서 국가 간 갈등을 다룰 때 심리, 경제학,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규명하였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갈등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성격중심(Personality-centered model) 또는 사회중심모델(Society-centered model)로 지칭된다. 즉, 이들 접근방법은 개인의 태도, 견해, 퍼스낼리티(personality), 행위양식을 통하여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인 측면(개인적 차원)에서 라포포트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원인을 찾으려고 했다.

즉, 어린 시절의 흥터, 양친의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 그리고 욕구불만 등은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을 소유한 정치지도자들은 대규모의 공격적인 행위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았다. 사회과학에서 도입한 인간행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오히려 이러한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인간의 심성이나 태도, 행위양식은 그가 처해있는 환경과 문화에서 습득하는 것이며 인간의 행태를 형성시키는 사회 환경이 갈등 지향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인간의 본능에는 영토를 소유하고 무리에서의 소유자가 되고 싶기에 부단히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인격을 소유한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본능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궁극적이며 직접적 목표는 힘의 추구에 있으며 여기서 국가의 팽창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국가 팽창주의적 경향은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체계자체에 가져오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둘째, 국가내의 체계통합에 실패한 것을 은닉하고 그 대안으로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보상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두번째 경우에서 국가체계내의 갈등을 내부에 국한시켜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적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체계 외부의 타국가를 향하여 투사하거나 전가함으로써 내부갈등요인의 방향전환을 꾀하는 사례가 많다. 즉, 집권층과 엘리트 집단은 외적 위협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상징을 정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외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내적 단결을 도모한다. 이로써 집권층은 그들의 국내 정적들과 국외의 적들을 관련시킴으로써 집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효과적인 동원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7) 권기수, “국제분쟁 원인에 관한 소고 : 과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Ⅲ. 카스피 해 역내 해군 군사력 및 군비 경쟁의 과정 분석

1. 러시아

러시아는 현재 총 5개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작은 규모로 카스피 해 함대를 운용 중이다. 2013년 기준 창설 291년이 되었으며 그 크기가 일반적인 함대보다 작기 때문에 소함대 또는 분함대로 분류되고 있다.⁸⁾ 모항은 아스트라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임무는 대테러 활동과 교역에 있어서 안전 보장 그리고 원유 산지에서의 국익보장이다. 원래 지휘부와 시설은 독립공화국들과 공유하고 있었으나 1992년 3월 카스피 해 함대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에 모항으로 사용하였던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아스트라한으로 러시아 함대가 이전하게 되었다.

1992년 분할 합의 이후로 임무 중 하나였던 밀수 방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나 1997년 중반 카스피 해 함대 전력 증강 및 활동 범위를 늘리기로 결정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09년 러시아 국방부 성명에 의하면 2015년까지 모든 육전대를 최신 무기로 무장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2년 부란 급 초계함 도입 및 2013년 미사일 고속정 배치가 있었고 이외에도 우글리치 급 미사일 고속정과 그라초프급 미사일 초계함 및 세르나 급 상륙정과 예인선도 인도 될 예정이다.

현재는 만재 1930톤 게파트 급 호위함인 <타타르스탄>이 기함이며, 이와 동급인 다게스탄이 같이 운용되고 있다. 550톤의 부란 급 초계함은 총 3기로, 아스트라한, 볼고돈스크, 마하치칼라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에 있다. 이외에도 타란툴 급 초계함 3기와 만재 257톤 마트카 급 미사일 고속정 3기, 4기의 포함, 3기의 소냐 급 소해정 및 280톤 두곤 급 상륙정 및 세르나 급 상륙정 5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에서의 함대는 단순히 군함과 수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해병대와 같은 육전대를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⁹⁾ 카스피 해 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세르나 급 상륙정 같은 경우 한대의 탱크 또는 두 대의 보병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고 보병만 태울 시에는 92명을 태울 수 있다. 이러한 상륙정을 이용하는 육전대는 카스피 해 함대 주둔지 중 하나인 마하치칼라 인근 카스피스크에 제414 해군 보병 연대가 있으며 모항인 아스트라한에 제 727 해군 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스피스크에 제 46 해안 미사일 대대 및 마하치칼라에 제 137 스페츠나츠 여단이 위치하고 있다.¹⁰⁾

2. 이란

이란 해군은 삼군 중 제일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1979년 3만 명이던 해군의 규모가

8) 러시아의 함대 구성은 소르레메니급 구축함을 기함으로 하여 통상 20척 이상의 구축함과 호위함으로 구성.

9) Морская пехота России, Википедия ru.wikipedia.org/wiki/Морская_пехота_России

10) Каспийская Флотилия <http://warfare.be/db/linkid/2232/catid/321/lang/rus/>

1986년 절반으로 줄었으나 2008년 기준 1만8천명이 되면서 점점 규모의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 총 5개의 작전구역으로 나뉘서 해군을 운용 중에 있으며 걸프 만에 3개의 구역, 인도양에 1개, 카스피 해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작전구역의 편중의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만에 있다. 이 구역들은 이란 석유 수출의 필수 통로로 카스피 해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카스피 해에도 눈을 돌려 함대의 증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 해군의 카스피 해 모함은 예전에 반다르 에파이발리라 불리었던 반다르 에안잘리이며 소해정과 작은 순찰용 군함이 전부였던 카스피 해 함대는 2012년 1400톤급 자마란-2 구축함¹¹⁾이 취역하면서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구축함은 유도 미사일과 어뢰를 장착하였으며 신형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군사 작전의 신속성을 가져가는데 유리하다.

이외에도 이란의 고위 해군 장성은 소형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카스피 해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구축함 1척을 내년 중으로 취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3. 아제르바이잔¹²⁾

아제르바이잔의 해군은 바쿠를 모함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카스피 해 함대의 공동 운영 주체였기 때문에 해군 인프라와 다양한 군함을 물려받았으며 2012년 이란의 자마란-2 구축함이 취역하기 전까지 카스피 해 내 러시아 다음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3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함으로 만재 1150톤의 페트야 급 호위함을 1대 보유하고 있다. 이 군함은 미국과 터키에 의해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유하고 있는 4척의 초경량 잠수함은 아제르바이잔 해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13대의 어뢰/미사일 고속정과 6대의 상륙정 및 4개의 소해함과 해군 소속으로 3개의 CN-235 수송기와 3대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 12월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인 사파르 아비예프는 아제르바이잔 해군을 다양한 크기의 군함으로 총 80척까지 늘릴 것임을 천명하였고 현대화를 주창하였다. 장교 양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바쿠에 고등 군사 학교와 고등 해군 학교를 만들어서 운용중이다. 군사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로 2001년 6월 미국으로부터 2대의 군함을 공여 받았고 2002년 5월 4백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맺었다.

11) Navy recognition, Iran Launches news "Jamaran 2" Frigate in Caspian Sea, 2013.3.17
http://www.navyrecognition.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937

12) Global Security, Azerbaijan, 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azerbaijan/intro.htm

이와 더불어 터키와는 2002년 4월 BTC 파이프라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약을 서명하고 아제르바이잔 장교 교육 및 교환학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련방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육전대와 함께 해군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1년에 설립된 해군 특수부대는 편제가 터키와 미국의 특수부대의 편제와 비슷하다. 현재 3개의 정찰그룹으로 편성되어있는데 2개는 육상전투그룹이고 1개는 해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룹으로 나뉜다.

4. 카자흐스탄¹³⁾

2003년 5월 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카자흐스탄 해군이 창설되었다.

아크타우를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 18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4월 카자흐스탄 제니트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인도된 <카자흐스탄> 미사일 고속정이 가장 최신에 함이다.

이외에 한국에서 척당 100달러에 인도된 참수리급(돌핀) 고속정 3척¹⁴⁾과 러 해군 대공포-미사일 포함(gunboat) 7척이 있으며 4척의 수송선을 운용중이다. 약 2,320km의 카스피 해 해안선을 감시해야 되기에 50척에 가까운 경비정 또한 운용 중에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분쟁이 일어난 2001년 7월 이후 아스타나에 고등 해군 학교를 만들었고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함정을 공여 받았다. 현재 해군의 인원은 약 3,000명 정도로 함정 승무원보다 육전대 병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해군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항모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투기와 파일럿이 해군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요청하면 즉시 바로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는 비행장이 해군의 모항인 아크타우에 위치하고 있다. Interfax-Kazakhstan은 2011년에 2기의 Su-27 전투기와 7명의 Su-27 파일럿과 12명의 헬리콥터 조종사가 소속된 제 612 해군 소속 공군기지를 완성했다고 보도하였다.

5. 투르크메니스탄¹⁵⁾

각 보고서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병력이 다르게 추산되고 있다. 최소 500명에서 최대 2천명 또는 3천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현재 카스피 해 연안도시인 투르크멘바시를 모항으로 5척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2008년 러시아로부터 3척의 유도미사일 고속정과 2척의 순찰용 고속정을 구입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초계함 같은 더 큰 군함을 구매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3) Global Security, Kazakhstan naval infantry, Kazakhstan navy
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kazak-naval-infantry.htm
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kazak-navy.htm

14) 박병진, “우리해군 고속정 카스피 해 누빈다.” (2005.4.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91214>

15) Global Security, Turkmenistan navy
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turkmen-navy.htm

2010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15년까지 카스피 해 함대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해군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에 의해 명목상 해군이 먼저 창설 되었다.

이후 크기 측면으로 해양경비대에서 해군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2001년 우크라이나에서 10대의 고속정과 4대의 포함(gunboat)을 도입계획을 세웠고 이후 도입수량을 늘리며 개량형도 추가로 들여오기로 합의를 하였다.

2009년 말에는 러시아에서 고속정 2척을 도입 및 2010년 10월에는 2대의 미사일 고속정을 도입하였다. 2011년 타란툴 급 고속정을 2대 도입하였으며 이후 추가 도입을 고려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해군기지는 소형으로 2015년까지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 이었으나 계획이 앞당겨진 상태이다.

이러한 급속한 도입 및 공사의 원인은 이란이 제2의 카스피 해 해군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고 있다.¹⁶⁾

6. 군비 경쟁의 과정 분석¹⁷⁾

해군력 측정에 있어서 국가 간 해군력을 비교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함선의 수 비교 및 함정의 톤수 합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숫자 비교에는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통계상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규모가 미국의 해군 규모보다는 크지만 함대의 총 배수량으로는 미국이 미국의 다음 13개 국가들의 총 배수량을 합한 것 보다 크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일 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수학적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조차 분명치 않다. 하지만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의 해군력 비교에서는 위 비교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유로는 명확하게 러시아가 타 국가들보다 해군 군사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국가는 발전하는 추세로 그 차이를 가늠하기 위해 서로가 도입하고 있는 함정을 비교 할 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함 보유량과 총 배수량을 비교 및 국방비 비교로 군비경쟁의 외부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 현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대통령 군사 관련 발언으로 내부적 요인을 분석해보자 한다.

16) Stratrisks, "TURKMENISTAN Quietly Builds Up Caspian Military Might" (2012.7.15)
<http://stratrisks.com/geostrat/6919>

17) 제임스 홈즈, 요시하라 도시,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비교", 신동아 (2011.2.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62&aid=0000004271>

<표 1> 카스피 해 연안 국가 전함 보유량 및 총 배수량 비교

국 가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전함 보유량	23	1+@	24	18	20
총 배수량 (톤)	9,801	1,400+@	6,710	3,450	3,340

출처 : www.globalsecurity.org, russian-ships.info, www.wikipedia.org 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이란의 카스피 해 함대는 현재 러시아에 뒤이어 제 2의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소형 함의 보유 대수에도 기인하나 가장 큰 요인으로 러시아의 전함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전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큰 전함은 500톤이 넘지 않으며 아제르바이잔의 기함인 1150톤급 페트야 급이 가장 비교대상이 될 만하다.

페트야 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76mm 함포 4문이지만 이란의 자마란-2는 76mm 함포와 지대공/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누어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200km 반경 내 목표를 포착하여 명중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¹⁸⁾

이란 카스피 해 전함 보유량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표 1> 에는 작년에 도입한 자마란-2 구축함만 들어가 있다. 나머지 전함의 구성을 추측해보기 위해 전체 이란의 전함 보유량을 조사해 본 결과 카스피 해 전함의 대부분은 해안가 순찰용 고속정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 이란의 총 전함 보유량은 408대로 중국, 북한, 태국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87대는 해안가 순찰용 함정이며 잠수함과 강습상륙함이 각각 29대, 26대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소형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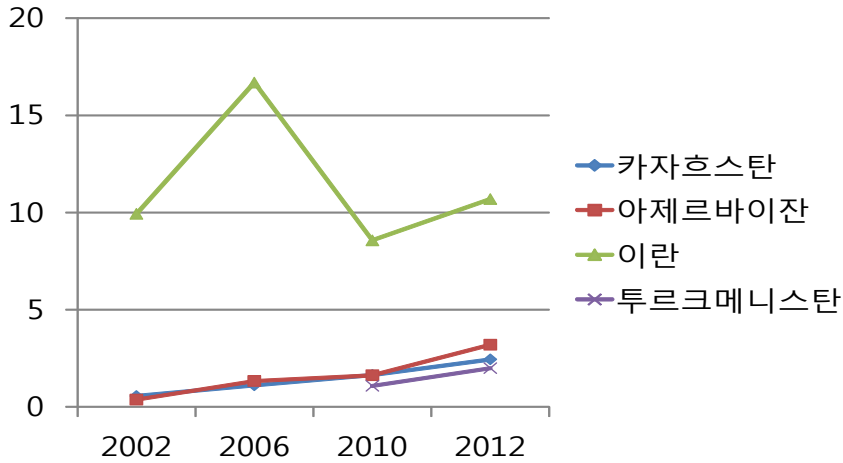
즉, 러시아를 제외하고 500톤 미만 소형 함정 이외의 대형 군함이 없던 카스피 해의 판도를 바꾼 것은 바로 이란의 자마란-2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갑자기 영해에서의 안보를 주창하며 2007년부터 건조에 들어간 자마란-2에 대항하여 각 국가들의 군사 지출이 매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18) Naval Technology, "Jamaran / Mowj Class Multi-Purpose Guided Missile Frigate"
<http://www.naval-technology.com/projects/jamaranmowjclassmult/>

19) Globalfirepower, Country military strength detail - Iran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Iran

<표 2> 카스피 해 연안국 군비 지출 현황 (2002 ~ 2012)

단위 : 10억/\$



단위 : 10억/\$

지출년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2002	0.552	0.364	9.923	
2006	1.102	1.322	16.684	
2010	1.635	1.618	8.565	1.07
2012	2.434	3.186	10.687	1.98

출처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1988-2012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러시아는 2012년 기준 군사비 지출 약 900억 달러로 카스피 해 역내 1위이며 이를 이어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에 따르면 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러시아가 4.4%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3.4%, 투르크메니스탄 2.9%, 이란 1.8%, 카자흐스탄 1.2%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은 GDP 대비 군비 비율은 1998년 이후 최초로 감소한 해로, 0.5%가 감소하였으나 카스피 해 연안 국가들 중 GDP 대비 군비 세계 평균인 2.5%가 넘는 국가가 5개국 중 3개국이며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이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또한 각 국가들의 수반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여러 번 열린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경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성에 기반 하여 군비증강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안국가들 모두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정책의 진행도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에 따르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통령령 161호로 군사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 중 카스피 해에 관련하여 “카스피 해의 해결되지 않은 법적 지위는 군사력 확대에 이어지고 있으며 소유권 논란에 있는 유전은 역내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꾸준한 군비증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²¹⁾

20)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2, SIPRI (2013. 4)

이란의 이전 대통령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카스피 해 구축함 진수식에서 “이란의 해군은 우호증진과 모든 국가에게 안보를 제공하며, 카스피 해의 안보를 방해하는 극단주의를 방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의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우위를 잡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며 압도적인 전력으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다.²²⁾

즉, 경계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정책의 주체인 각 대통령들은 카스피 해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서로 자극받으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 불안감이 군사 정책에 반영되면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볼 것인가 호수로 볼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바다로 인정이 된다면 유엔해양법 협약이 적용되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호수로 인정이 된다면 인접국과 협의하여 경계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바다와 호수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니 이 지역에 맞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카스피 해 경계획정에 대한 연안국들 간 입장 대립 구도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이 되었는데 이러한 구도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과 수역 공동이용, 바닥 분할 안에 합의하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최종 합의가 멀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란에 달려있었다. 이란이 위 3개국 합의만 한다면 다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도 따라올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2장에서 설명한 학자들의 정의로 군비경쟁이라는 용어를 카스피 해 연안 5개국 군비경쟁 상황에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했었다.

러시아 해군이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개국은 그 군사력의 증가 속도가 빠른 추세이나 아직은 러시아에 비하면 절대 열세기에 군비경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스피 해 제 2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란에 주목해보자면, 러시아와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가장 거대한 군사력과 마찰은 피하고, 역내 최대 크기 전함 진수 및 잠수함 배치 계획을 발표하며 경계가 맞닿아 있는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

21) FMSO, Republic Update - Military Doctrine and Policy of Kazakhstan, 2011, pp15~18

22) Xinhua, "Iran's newly-launched destroyer in Caspian Sea "to guarantee security": president: (2013.5.18) <http://www.prisonplanet.com/irans-newly-launched-destroyer-in-caspian-sea-to-guarantee-security-president.html>

며 두 국가는 이에 맞서 군사력 증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3개국에 러시아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으로 나토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즉, 서로 상대방 군사 행동 억제능력 배양에 그 목적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 군비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2년도 이란의 구축함 취역을 발단으로 군비경쟁이라는 용어 사용은 더욱 명확해지게 되었다. 더 이상의 협의보다는 군사력 우위를 통한 지역 패권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선택한 것이 되었으며, 주변국을 경계하고 있는 연안 국가들 간 군비 경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카스피 해에서 해군 퍼레이드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경계 획정 문제의 진척은 어려워 보인다.²³⁾

이해당사자들끼리 풀지 못하는 문제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등장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어야 한다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카스피 해 연안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는 외부의 간섭은 배제한 채 역내에서의 타결을 외치고 있다. 2013년도 9월 외교부 장관급 카스피 해 연안국회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다.²⁴⁾ 연안 유전의 고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자칫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카스피 해의 중요성은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매한 경계구역 설정 하에서의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²⁵⁾ 러시아가 이에 따른 군사적 행동을 직접 언급했기에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지금의 합의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파이프라인 합의 상황에 따라 각국의 군사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된다.

23) Defense Update, "Iranian, Russian Navies to Launch Joint Naval Wargames in the Caspian Sea" (2013.6.28)

http://defense-update.com/20130628_caspian_wargame.html

24) News.az, "Caspian littoral states' working group discusses Caspian status" (2013.9.12)

<http://www.news.az/articles/politics/82522>

25) 연합뉴스, "EU·투르크멘, '카스피 가스관' 착공 임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610718>

<참고문헌>

- 제성훈, 카스피 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회 제26호, 2009
- 방금철, 한중일 3국 해군군비경쟁에 관한 실태와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2006
- 김승, 군비경쟁의 기원 : 동북아시아(1998~2008) : 군사비 증강의 원인분석과 리처드슨의 군비경쟁이론의 재고찰, 고려대학교, 2009
- 제성훈,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2010
- 권기수, “국제분쟁 원인에 관한 소고 : 과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 에너지정책연구원, 세계 주요국의 자원 부존 및 수급 분석 - 카스피해 연안국가를 중심으로, 2008
- 요리우리신문사, 권재상 옮김, 최첨단 무기 시리즈 대양함대 - 현대의 해군력, 1993
- 강삼구, 신 거대게임: 미국과 러시아간의 카스피 해 에너지자원 획득 경쟁, 2008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러시아의 안보 정책과 군사 조직, 2001
- 선종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2011
- 김선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2009
- 황재연, 김정환, 현대 해군의 수상전투함, 2007
-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임인수 옮김, 국가의 해양력, 1999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ranian Naval and Maritime Strategy, 2013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Situation Report: The Russian Crisis Update, 2008
-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2, 2013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1988-2012, 2013
- FMSO, Republic Update - Military Doctrine and Policy of Kazakhstan, 2011

Roger N. McDermott, KAZAKHSTAN'S DEFENSE POLICY: AN ASSESSMENT OF THE
TRENDS, 2009

Jim Nichol,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2012

